

# “부산 상징하는 축제 만들 터”

범어사 전통등 감습회...1월 24일, 21일 2회 열어



부산 범어사가 부산연등축제를 세계적인 대중참여축제로 이끌기 위한 전통 등 문화 보급에 앞장섰다. 사진은 감습회 장면.

부산 범어사(주지 수불 스님)가 전통 등 문화 보급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범어사는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관 대강당에서 1월 14-15일, 1월21-24일 각각 2회의 감습을 열었다.

이번 부산연등축제를 세계적인 대중참여축제로 끌어내기 위한 전통등 문화 보급에 범어사가 당당한 행보를 시작한 것이다.

100여명이 참여한 이번 감습회는 성공적인 전통등 문화 보급과 확산을 위해 서울연등축제 기획팀과 전통 등 제작 전문가 10명을 초빙해 진행됐다.

이번 감습회는 초호화 장엄등보다 누구나 쉽게 만들어 참여할 수 있는 행렬등 제작 보급운동을 확산시키고자 마련됐다. 총괄 기획을 맡은 범어사 기획국장 목종스님은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의 적극적인

을가 생각했는데, 철사를 잇고, 한지를 붙이고 채색을 하면서 차츰 완성되어 가는 등을 보면서 환희심을 느꼈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명평(범어사청년회)씨는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는 초호화 대형 장엄등에 주눅이 들어 참가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이번 등 감습회를 통해 서울 연등축제의 성공적 비결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행렬등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용기와 자신감을 갖게 됐다”며 감습회에 참여한 보람을 이야기 했다.

서울연등축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민참여축제 1위에 마크될 정도로 세계인의 축제로 발돋움한 반면, 부산 연등축제는 이벤트성 축제, 소모성 축제, 동원 축제 등 일회성 축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실정이었다.

다행히 최근 부산지역 몇몇 단체들의 자발적 노력과 정부예산지원으로 시민참여 축제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연등축제 집행부의 전통등문화에 대한 이해부족, 중·장기 발전 전략 부재, 지역사회 기여와 자발적 참여모색에 대한 진정성 결여 등의 한계를 보여왔다.

그래서 범어사의 전통등 감습회는 대중 참여축제 단위에서 출발해 부산시민으로 대상을 확대해가겠다는 취지는 그 어느 때 보다 반가운 일이다. 체계적인 등문화 보급을 위한 4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부산연등축제의 새로운 변신을 기대해 본다.

### 행렬등 보급 운동으로 부산연등축제 국제화에 기여

제안과 관심 속에 추진 된 행사다. 부산연등축제가 국제도시 부산의 상징적인 문화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며 기획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목종스님은 “범어사는 전통등 문화 보급을 위해 4개년의 계획을 세웠다. 범어사 수행단체 교육에서 시작해 향후 범어사 말사, 불교계, 시민들에게까지 점차적으로 전통등 보급운동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사에 참여한 김진희 씨는 “화려한 제 등행렬을 보면서 나도 저런 걸 만들 수 있

###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 부처님의 가르침은 작은 실천부터

밧들 위에 가지런히 벗어 놓은 하얀 고 무신을 보면 그 절에 사는 스님들의 모습을 대변해 알 수가 있다. 스님도 스님이지만 절 살림을 사는 보살님이나 거사님들의 성격까지도 한눈에 들여다 볼 수가 있다.

신발 벗어놓은 모습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작은 것 하나가 살림살이 전체를 드러내 보일 수 밖에 없으니 작은 것이라고 해서 어찌 소홀히 생각할 수가 있겠는가!

예전처럼 절에 불자들이 많지 않고 절집에서 담당하는 기능이 다양하지 않았던 때에는 법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기회가 드물었기 때문에 문밖에 벗어놓은 신발 한 두개가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그러

나 요즘처럼 법당에서 사시사찰 다양한 법회가 열리고, 많은 불자들이 끊임없이 자기 수행이나 기도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법당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럴 경우 무관심하게 벗어놓은 신발 하나가 여러 불자들에게 불쾌감을 줄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나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새로운 문제점으로 등장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언제부터인지 많은 절에서는 불자들이 출입하는 문밖에 신발장을 짜 놓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그렇게 되면서 불자들이 법당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어 신발장에 넣어 두거나 가지런히 정리하는 것이

이상적인 모습으로 정착되는 듯한 분위기이다.

그러나 이러한 질서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의 기분이나 절집의 품위를 생각하지 못하는 불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무질서하게 벗어놓은 신발로 인해서 범죄가 끝나고 문밖을 나서면서 우왕좌왕하게 되거나 심지어는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등 혼란스럽고 불미스러운 일을 종종 볼 수가 있다.

불교는 위계와 질서를 존중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을 기본적인 소양으로 생각하는 종교이다. 아무렇게나 벗어놓은 신발이 다른 불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지 않은 느낌을 주게 된다면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은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라고 하기 어렵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대로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이해하며, 남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작은 것에서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 “전국 모범으로 부산 불교 우뚝 서길”

부산불교승가연합회 신년만찬회

비조계종연합 부산불교승가연합회(회장 법민)는 삼광사 법화삼매당에서 신년인사 및 부산불교발전기원 만찬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정각 스님(미통사 회주)을 증명으로 법민 스님(수덕사 주지), 화산 스님(삼광사 주지), 조연 스님(범연사 주지), 자인 스님(길상사 주지) 등 부산지역 비조계종단 스님 100여명이 동참했다.

법민 스님은 “신년벽두 범종단의 스님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하게 돼 반갑고 영광스럽다”며 소회를 밝히고 “승가연합회의 출범으로 이제 종단 간 차별에서 벗어나 모두가 일심동체, 일불제자로 승가의 진면목을 드러내고 부산불교가 전국의 모범으로 우뚝 서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인사의 말을 전했다.

이사장 화산 스님은 “종단의 결정에 따라 부산을 떠나게 되어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히고 “어디에서든 승가연합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각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37년 부산불교의 발전을 위해 혼



부산불교승가연합회 신년 만찬회 장면

신의 힘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뒤돌아보니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남은 기간 승가연합회의 발전을 위해 책임지고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신년인사, 임명장수여, 2013 사업설명으로 진행됐으며, 2월경 운전동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임주식과 현관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 울산 월봉사 불자야구단 창단

거사회 중심으로 23명 선수 구성

울산 월봉사(주지 오심 스님)가 불자 야구단을 창단했다. 월봉사는 1월 12일 경내에서 ‘월봉사 사파니스 야구단’ 창단 및 발대식을 갖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구단주는 월봉사 주지 오심 스님이 맡았다. 야구단은 거사회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김용석 거사가 단장을, 이태희 거사가 회장, 하대식 거사가 감사, 김양근 거사가 코치, 정성우 거사가 총무를 맡는다.

현재 23명의 선수로 구성돼 있으며 호응도에 따라 참가자를 늘릴 예정이다. 야구단은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상진초등학교에서 연습을 진행한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 안동사암聯 성도재일 법회

고우스님 “중도 의미 강조”

안동불교사암연합회가 1월 17일 부처님 성도재일 맞아 안동 시민회관에서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고우 스님(조계종 원로위원), 자현 스님(안동불교사암연합회장) 권영세 안동시장 등 700여명의 사부대중이 모였다.

회장 자현스님은 “오늘은 부처님께서 6년 고행으로 정각을 이루고 세상을 교화시킨 날”이라고 성도절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조계종 원로위원 고우스님은 법어 를 통해 “연기가 핵심인 불교의 중도를 이해하라”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대법회는 안동불교사암연합회가 안동지역 불자들의 화합을 위해 마련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아무렇게나 벗어놓은 신발은 다른 불자들에게 좋지 않은 느낌을 주게 된다. 서울 자사찰

스님, 불자라면 누구나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 스님과 함께 떠나는 하나투어 (VIP여행사) 중국성지순례 6일

부산에서 3월 29일 출발 : 북경 | 성도 | 아미산 | 낙산 / 부산 ⇨ 북경 ⇨ 성도(1박) ⇨ 낙산 ⇨ 아미산(2박) ⇨ 성도 ⇨ 북경(2박) ⇨ 부산

### 불자라면 ~ 평생 한번은 꼭 가봐야 하는 성지순례

세계 최대 마애불상 낙산대불! 보현보살 도량 아미산! 성도의 최고 고찰 문수원! 만리장성, 천안문, 자금성 관광까지...

금리거리  
대불선원  
만리장성  
문수원

아미산  
무후사

**주요일정 (전일정 현지최고호텔 및 전용버스)**

1일 (3/29, 금)	북경, 성도
2일 (3/30, 토)	낙산 : 조각사, 대자사, 낙산대불, 대불선원
3일 (3/31, 일)	보현보살 도량 아미산, 만년사, 금정사, 복호사
4일 (4/ 1, 월)	성도 문수원, 아미산 보국사, 소열사, 금리시장, 북경
5일 (4/ 2, 화)	만리장성, 천안문, 자금성, 이화원
6일 (4/ 3, 수)	북경, 부산

- 여행 경비 : 1,370,000원
- 상기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나투어)
- 전화주시면 상세일정 안내 및 세부일정표 보내드립니다.
- 여권사본팩스, 여행경비 입금 FAX : 0551867-8009

세계 최대 마애불상 낙산대불

**문의 및 접수 : 0551867-2259 / 진주 하나투어 VIP여행사 0551741-9999**    후원 : 현대불교신문사